

제22회 영랑시문학상, 조용미 시인 선정

“고전적 문양과 조선적 정서로 김영랑 시정신 계승”

제22회 영랑시문학상 수상자로 조용미 시인이 선정됐다.

강진군과 동아일보사가 공동 주최하는 이 문학상은 '영랑 김윤식 선생의 문학 정신을 창조적으로 구현한 역량 있는 시인'을 발굴하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조용미 시인의 이번 시집 '초록의 어두운 부분'은 이전작인 '나의 별서에 핀 앵두나무'에서 이어지는 고전적 문양의 탐구를 더욱 심화시킨 결과물이다.

이번 시집은 고전의 개념을 옛 미학이나 문헌을 넘어, 우주의 질서를 시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분홍', '초록', '노랑', '검정', '붉음' 등의 색채에 대한 깊이 있는 천착은 독특한 감각을 통해 독자들에게 영랑의 '모란'과 같은 여운을 남기며, 색의 의미를 내면의 정서와 연결짓는 시적 깊이를 보여준다.

심사위원들은 김영랑 시의 조선적 정서를 가장 근접하게 담아낸 시인으로 조

용미를 꼽았으며, 전원 일치로 수상을 결정했다.

위원들은 심사평을 통해 “조용미의 시는 전통적 정서와 현대적 감각을 접목하며 시의 형식과 리듬을 새롭게 제안하는 긴장감 속에서 고전미와 현대미를 오가는 독창적인 성취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조용미 시인은 경북 고령 출신으로 1990년 '한길문학'에 '청어는 가시가 많아' 등을 발표하며 등단했다.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기억의 행성' '당신의 아름다움' 등 다수의 시집과 산문집을 출간하며 꾸준히 활동해 왔다.

김달진문학상, 김준성문학상, 고산문학대상, 목월문학상을 수상했다.

조용미 시인은 수상소감을 통해 “시는 말의 리듬이 출렁이다 가리웠는 생의 방식이며, 색과 소리를 통해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이다”라며 “시를 쓰는 참뜻은 고기잡이보다 세상 생각을 잊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한

발 더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랑의 시처럼 아름다운 우리 말의 리듬과 정서를 고민하며, 앞으로도 시를 통해 이 세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해 나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은 문학과 예술, 그리고 자연이 어우러진 감성의 도시이다. 군은 문학과 관광 자원을 보다 폭넓게 알리기 위해 '강진 반값여행'과 같은 관광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강진을 찾는 이들이 시와 자연, 음식과 풍경 속에서 온몸으로 문학을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문화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강 군수는 이어 “조용미 시인의 수상을 계기로 영랑 선생의 시세계가 다시금 조명되고, 우리 시문학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대중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시가 일상이 되는 강진, 삶이 예술이 되는 강진을 만들어가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영랑시문학상은 한국 현대시의 거장



김영랑 시인의 문학적 유산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시문학의 맥을 이어가는 시인들을 발굴·격려하는 데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영랑시문학상 시상식은 오는 4월 18일 강진아트홀 소공연장에서 열린다. 조용미 시인에게는 상금 3,000만원과 함께 상패가 수여된다.

강진/손경설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본부, 질병관리청과 함께 ‘간암 예방’ 인식 개선 위한 홍보부스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이영희)는 3월 26일(수) 광주 전남지역암센터에서 주관하는 제18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에 참여하여 간암예방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홍보부스는 호남권 질병대응센터(센터장 윤정환)와 협업하여 공동으로 운영 되었으며, ‘암 예방의 날’ 행사가 진행된 화순군 하나움 문화스포츠클럽에서 11개 시·군·구 보건소 관계자 및 지역민 약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간암의 발생원인 및 예방수칙, 특히 바이러스 간염(B·C형)의 예방법이 담긴 리

플릿과 홍보용품을 배부하여 ‘간암의 위험성과 예방수칙 알리기’를 위해 노력했으며,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지역사회 간암 예방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본부는 전국에서 간암 환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간암 예방을 위한「간암-알리오(ALIO)」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간암의 가장 큰 위험요인인 ‘바이러스(B·C형) 간염’ 예방을 위해 지난 2월6일(목) 호남권질병대응센터와 업무협의를 진행하여 협업 방안을 발굴해 나가는 중이다.

/이승원 기자

나주시, 아동 돌봄 현장 목소리 듣다… 지역아동센터와 소통 강화 방과 후 돌봄 강화 위한 협력 방안 논의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최근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지역아동센터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아동센터장들을 격려하고 아동 돌봄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교육, 정서 지원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날 윤병태 나주시장, 노신철 나주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을 비롯해 관계자 29명이 참여해 센터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하심담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노신철 나주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은 “최근 초등 전일제 돌봄 확대 정책인 늘봄학교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위축되고 있다”며 “변화하는 돌봄 환경 속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기에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행정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

인 소통을 통해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보다 나은 아동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구례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119생활안전순찰대 협업체계 구축 취약계층 생활안전·복지지원 연계 위한 민관협력 간담회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지난 25일 구례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업무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취약계층에 더욱 다양하고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례군 우리동네복지기동대와 구례소방서 생활안전순찰대의 협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두 기관은 각자의 사업과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협력 방안 및 활동 계획 등을 함께 논의했다.

구례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9개대 13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규모 수리·수선, 주거환경 개선사업, 생활안전 지원, 위기가구 발굴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119생활안전순찰대는 관내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안전점검,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어르신 가구 전등 교체, 생활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활동으로 생활속 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구례/한정호 기자

고흥군 남양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의 밑반찬 나눔’ 행사 취약가구 50가구에 정성 가득, 따뜻한 한 끼 전달

고흥군 남양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류상도, 민간위원장 임병욱)는 지난 26일 관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50가구를 위한 ‘사랑의 밑반찬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성이 담긴 밑반찬을 직접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밑반찬은 김밥, 어묵구, 떡, 멸치볶음 등으로 구성됐으며, 지역사회보

장협의체 위원들과 자원봉사자, 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정성껏 준비했다.

임병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정성껏 밑반찬을 준비해 주신 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남양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도 ‘열무김치와 함께 사랑 나눔 봉사



활동’ 추진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고 따뜻한 나눔 문

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고흥/박도일 기자



한수위의 에너지 한수원이 만드는 중!

미래형 소형원자로(SMR) 개발
세계 곳곳에 원자력 수출
클린에너지 원자력 수소
대한민국 에너지를 한 수 UP!



BUSAN is READY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를 한국수력원자력이 응원합니다